SPOT
ISSUE

13 Jan. 2026

DAOL 다올투자증권

(420770)

기가비스

9부 능선을 넘는 중인 업황, 장비사 수혜 임박

김연미
전기전자 I ym.kim@daolfn.com

● 26년부터 재개될 FC-BGA 투자 사이클의 최대 수혜 장비사

26년은 글로벌 FC-BGA 생산업체들의 신규 장비 투자가 재개될 원년. 생산업체들은 과거(21~23년) 대규모 장비 도입 이후 25년까지 기존 장비의 개조·전환 통해 수요에 대응. 25년 하반기를 거치며 기존 유휴장비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파악. 26년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신규 장비 투자가 불가피한 국면

● 생산업체들의 투자 가시성이 보여지는 구간

삼성전기, 유니마이크론, 킨서스 등 주요 FC-BGA 생산업체 전반에서 신규 투자 및 CapEx 상향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는 중. 26년을 기점으로 투자 가시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25년 초 60%대 중반 → 25년 말 80% 초중반)하며 여유 CAPA는 제한적인 상황. AI용 물량 중심의 구조적 수요 성장을 감안할 경우 신규 투자 의사결정은 26년 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업체별 동향은 다음 페이지에 후술)

● 예상대비 빠른 업황 속도, 1H26부터 본격적인 실적 온기 예상

생산업체들은 최종 고객사(=칩메이커)에 따라 밸류체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고객사 상황에 따라 실적 차별화 발생. 반면 기가비스는 주요 FC-BGA 생산업체 대부분에 공급하고 있어 업계 전반의 투자 재개 국면에서 개별 고객사 이슈와 무관한 수혜가 가능할 전망. 당초 1H26 실적 공백을 예상했으나 FC-BGA 업황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 4Q25 및 26년 실적 전망

4Q25 매출액 286억원(+317%, 이하 YoY), 영업이익 101억원(OPM 35%)으로 추정. 1Q25 일본 고객사향 수주 268억원 중 대부분이 4Q에 반영된 영향. 25년 연간 매출액 494억원(+89%), 영업이익 110억원(OPM 22%) 전망. 통상적으로 매출액 600억원 이상부터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되는 양상. 호황기(21~23년) 당시 OPM 30%대 후반~40% 기록. 고객사들의 CapEx 및 신규 발주 강도 고려 시, 26년 매출액 933억원(+89%), 영업이익 317억원(OPM 34%) 전망

생산업체들의 투자 가시성이 보여지는 구간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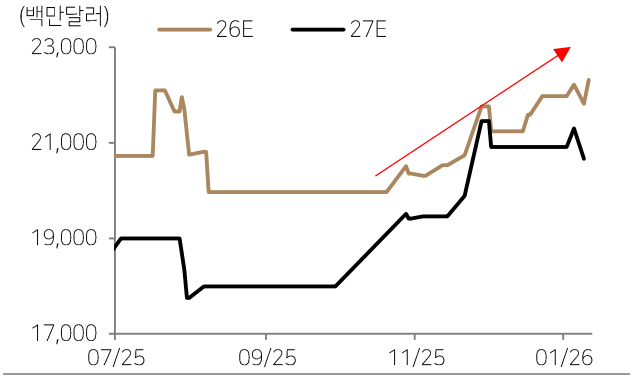
[삼성전기] 1/6(미 현지시간) 장덕현 사장 발언을 통해 FC-BGA 생산라인이 26년 하반기부터 풀가동될 것으로 전망, AI 데이터센터용 네트워크·파워칩·GPU 수요 확대에 따라 AI용 FC-BGA 비중이 60~70%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 또한 **FC-BGA 증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고 발언. 22년 호황기 이후 FC-BGA 증설에 대한 첫 공식 언급으로, FC-BGA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에 바인딩 되어 가동률 및 물량 보전 조건 등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사별 수요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

[유니마이크론] 25년 12월 기점으로 26년 CapEx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 30% 상향(NT$19.4B → NT$25.4B). 목적은 하이엔드 ABF 기판 CAPA 확대를 위한 신규 공장 건설 및 공정 업그레이드. 특히 **27년까지의 장납기 장비에 대해 최대 NT$2.5B 규모의 선주문을 승인하며 중장기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점이 특징적**

[이비덴] 27년까지 FC-BGA 생산량을 24년 대비 150% 확대할 계획(25년 9월 발표). 25년 10월부터 가동을 개시한 오노 공장은 총 15만평 부지 중 절반만 활용 중인 상태로, 나머지 절반은 향후 추가 설비 투자를 위해 여유 공간으로 배치. **26~30년까지 단계적 확장을 고려 시, 27년 이후 추가 투자 개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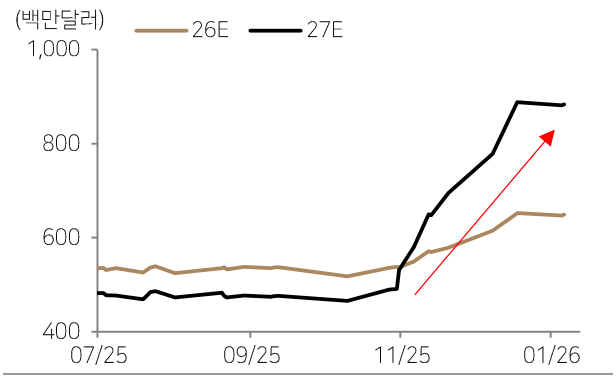
[킨서스] 26년 CAPA 확장 예정, 목적은 하이엔드 ABF 기판의 공정 최적화 및 수율 개선. **2H26 장비 입고, 26년 말까지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생산능력의 약 25% 수준의 캐파업 추진**

Fig. 1: 유니마이크론 연간 CapEx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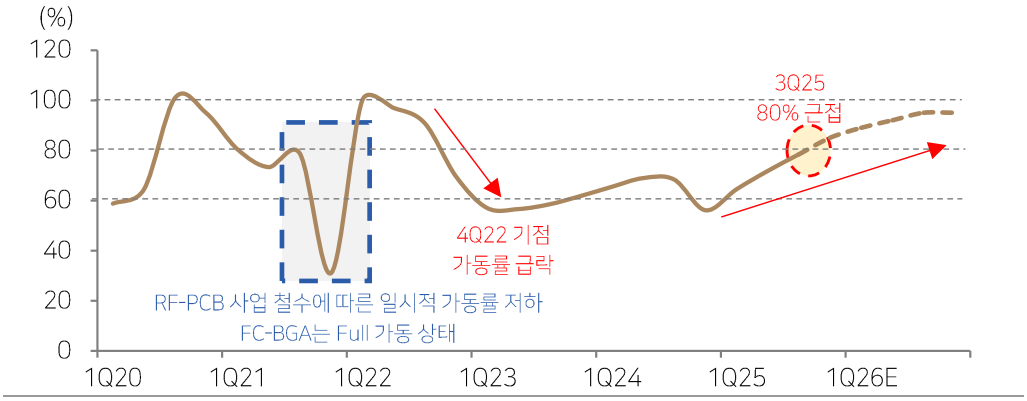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2: 이비덴 연간 CapEx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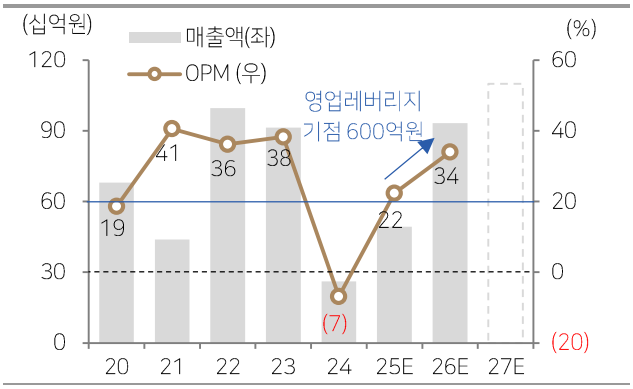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3: 삼성전기 패키지기판 사업부 가동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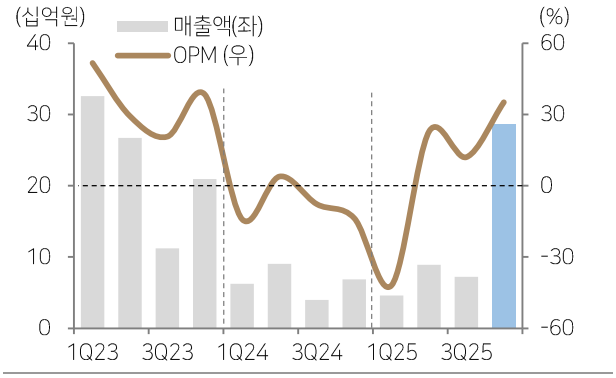
Source: 삼성전기,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4: 기가비스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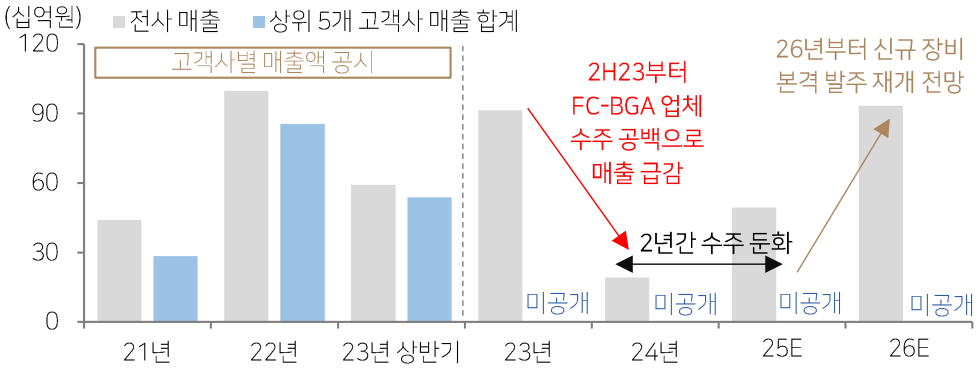
Source: 기가비스,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5: 기가비스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Source: 기가비스,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6: 기가비스 고객사별 매출액 추이 및 25~26년 전사 매출액 전망



(십억원)	21년	22년	23년 상반기	23년	24년	25E	26E
전사 매출	44.0	99.7	59.3	91.4	26.1	49.4	93.3
상위 5개 고객사 매출 합계	28.4	85.5	53.9	0.0	0.0	0.0	0.0
대만 N사	2.0	28.6	18.8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중국 Z사	0.0	19.9	5.7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국내 S사	7.3	16.8	7.2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대만 U사	10.8	12.3	0.0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일본 I사	8.3	8.1	22.3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Source: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5%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